

한국 차 문화사의 전개

김 상 현 ■ 동국대 사학과 교수

한국 차 문화사의 전개

김 상 현 동국대 사학과 교수

<서설> 삶과 갈증과 한 잔의 차

세상이라는 바다에 언제 바람 잘 날 있으며, 욕망으로 끓주린 인생의 배 다 찰 날 있던가.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주름살 늘어만 가고, 욕락은 누려 보아도 갈증만 심해질 뿐인 것을.

바쁜 날들 사노라면 한숨 돌리고 싶을 때 있고, 삶의 갈증으로 목마를 때 있다. 이럴 때 한잔 차 생각나고, 그 향기 그 맛은 진정으로 다정하다. 차는 찌들고 막힌 가슴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고, 차와 만나는 시간은 조용하게 깨어 있는 때이기에.

우리 선인들은 작설차를 즐겨 마셔왔다. 먼 삼국시대부터 선인들은 차의 맑음과 향기를 좋아했고, 잠을 쫓아 주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효능도 알고 있었다. 그윽한 차실의 정취로 마음을 맑혔고, 다구에 대한 관심은 고려청자의 발달에 영향 주었으며, 차의 고마움을 읊은 시 또한 적지 않게 남겼다. 어떤 이는 한 잔 차로 유배생활의 불운을 달랬고, 절간의 덕 높은 스님들은 차맛을 통해 선의 기쁨을 음미하기도 했다. 추사의 예술세계에는 차의 향기 스며 있고, 다산의 학문에는 차의 덕 배어 있으며, 초의의 선사상에는 차의 맛 묻어 있다.

옛적의 차인들은 차의 향기와 맛도 즐겼지만, 차에 내포된 상징적인 의미 되새길 줄 알았다. 정안수 한 그릇이 이미 보통물과 다르듯,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전통의 작설차는 커피와는 사뭇 다르다. 이 때문에 차인은 차를 마시되 단맛만을 탐하지는 않는다. 차가 가진 달고 쓰고 떫고 시고 짠 다섯 맛을 담담히 음미하려 하는 것이다. 그 맛은 곧

인생의 여러 맛과도 통하는 것이기에 쓴 맛, 뚫은 맛을 음미하면서 간간이 단맛 맛보는 재미도 있다.

차의 간이 맞아야 맛이 있듯, 인생의 간도 맞아야만 멋이 있다. 예부터 차인들은 물끓이기에 정성을 쏟아, 설 끓은 물은 맹탕이라고 했고, 잘 끓은 물을 경숙이라고 했다. 설익은 인생도 맹탕이다. 삶이 바쁘면 맹탕이 되기 싫다. 한숨 돌리고, 조용히 한잔 차 마시며, 우리들 마음의 바다에 파도 잔잔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리라. 차는 혼자서 마실 때가 가장 좋다고 한다. 초의 스님은 이때야말로 신령스러운 경지에 든다고 했다. 흔히들 차 맛은 선의 맛과 같다고 한다. 선은 고요한 것이다. 고요할 때, 우리들 부질없는 생각의 바람도 자고, 그때라야 자기의 얼굴이 수면에 비친다. 마음의 바다에 물결 일면 세상은 모두 뒤집힌다. 바람, 그 허망한 바람 채우면 물결도 그치리라.

차는 잠을 쫓아주는 약이다. 카페인 성분이 강하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는 까닭은 깨어 있기 위해서다. 곤한 잠에서 깨어남은 곧 인생의 긴 꿈에서 깨어남이고, 삶의 혼미에서 밝게 눈 뜨고 각성의 생활로 향해 가는 것이다.

차는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동의보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삶의 갈증은 심한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욕망을 다 채워 행복을 기약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한잔 차로 갈증을 해소함이란 작은 일에도 흡족해 하는 행복 그것이다. 옛 차인들은 차를 마셔 신선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달밤에 차 끓이며 세속 근심 잊기를 염원했다. 풍진세상 사는 사람들 가끔은 세속을 초월할 필요 있다. 일곱잔 차 마셔 날개 돋아난다며 차술에 끓는 물소리를 술바람 소리로 들으며 귀를 연 사람은 아름다운 이 되고, 작은 차실에서 세상 이치 눈치채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차의 가장 귀한 성품은 샷되지 않은 것이고, 맑고 깨끗한 것이다. 세상의 혼탁함은 맑은 것으로만 씻을 수 있다. 한잔 차로 맑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혼탁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맑은 차는 삶의 청량제로, “혼탁함을 없애기에 맑다고 하고, 뜨거운 번뇌를 식혀주기에 서늘하다고 한다.” 청량에 대한 원효의 해석이다. 현실의 삶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번뇌의 불길이 뜨거울수록 청량제 차는 향기롭다. “맑고 깨끗한 차의 정기 마실 때, 어찌 큰 도 이를 날 멀다고만 하랴.” 이는 초의스님 차시 중의 한 구절이다. 그러기에 차는 큰 길로 통한다.

바쁘고 목마른 생활, 그 생활의 와중에서, 잠시나마 한숨 돌리고, 마음의 평정 누리고자 하는 이, 졸리는 눈을 다시 뜨고 현실의 혼미로부터 깨어나 인생의 참맛을 담담히 음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 잔 차 있음은 다행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에 때

문기 두려워하고, 맑은 향기 그리워하는 진정 아름다운 이에게 차는 언제나 그윽한 빛이리라.

I 茶의 傳來와 新羅의 飲茶風

삼국시대말기인 선덕여왕(善德女王:632~647) 때부터 차는 있었다. 그러나 차가 우리나라에 널리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흥덕왕 3년(興德王:828) 대렴(大廉)이 당(唐)으로부터 차 종자를 가져다 왕의 명령으로 지리산에 심은 이후부터의 일이다. 이때부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과 호남지방은 우리나라 차의 본고장이 되었다. 이것은 이 지방의 기후 및 입지 조건이 차나무 재배에 적당한 때문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일부 승려 및 화랑도(花郞徒)들 중에서 차를 마셨다. 이들 사이에 음다(飲茶)의 풍이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이 시대의 엘리트였음은 물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이 이들의 수행이나 풍류정신(風流精神)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1 茶의 傳來

차를 마시는 일은 인간생명의 기본적 작업의 하나인 물의 섭취와 그 본질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의 연원은 전설의 시대에까지 소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나무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차를 마셨을 것이다. 물론 이 때의 차는 어떤 식물의 열매나 잎, 혹은 곡식 등을 넣어 끓인 넓은 의미의 차이지 차나무 잎을 따서 만든 녹차는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삼한시대에 백산차(白山茶)라 불리는 차가 있었다는 설이 있다. 이 설은 초의(草衣)의 『동다송(東茶頌)』에 그 전거가 있다고 하지만, 『동다송』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다. 이 설은 장백산(長白山)의 석남과(石南科) 식물의 잎으로 만든 백산차(白山茶)라는 대용차가 한국에 옛부터 있었다는 모로오까(諸岡存)의 설¹⁾로부터 와

전된 것 같다. 그리고 모로오카는 “장백산에 백산차가 있는데 건륭(1736~1795) 때에 청나라 사람이 궁중의 어용차(御用茶)로 채공(採貢)했다”는 이능화(李能和)의 설을 초의의 설인양 잘못 옮겨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로왕비(首露王妃) 즉 허왕후(許王后)에 의해 인도로부터 차가 전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²⁾ 있다. 이같은 주장은 김해의 백월산(白月山)에 죽로차(竹露茶)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수로왕비 허씨가 인도로부터 가져온 차종자라고 한다는 전설과 가락국의 거등왕이 제사에 차를 사용했다는 것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이능화가 1900년대 초기의 세전(世傳)을 기록한 것으로 믿을만한 자료가 못되고, 후자는 수로왕의 17대손인 갱세(廣世)가 661년에 조정의 명을 받고 가락국의 시조묘에 제사할 때의 제물 중에 차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가락국기』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가야시대에 인도로부터 차가 전래되었다는 설을 뒷받침할만한 사료(史料)는 거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차의 전래에 대한 자료는 『삼국사기』 신라 흥덕왕 3년(서기 828) 조의 다음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당에서 돌아오는 사신 대렴(大廉)이 차의 종자를 가지고 옴에 왕이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여왕때부터 있었지만, 이 때에 이르러 성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인 선덕여왕(632~646) 때부터 차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라의 음다(飲茶) 기록 중에 선덕여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료는 아직 찾아지지 않고 있다. 물론, 대렴이 차종자를 재수입해 온 828년 이전에도 신라에서는 차를 마셨던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라 하대(下代)에 왕명에 의해 지리산에 차를 재배했다고 하는 것은 차에 대해 새롭게 인식했음을 알게 해준다. 동시에 신라 하대에 이르러 차가 성행했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주목되는 것이다.

흥덕왕의 명에 의해 지리산에 차를 재배한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쌍계사 주변이었을 것이라는 설과 화엄사 주변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대두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이 자료만으로는 그 정확한 곳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장소를 밝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못된다.

1) 諸岡存・家入一雄, 『朝鮮の茶と禪』 1940, 茶道社, p.7.

2) 金明培, 「茶의 傳來와 產地」, 『日刊中央』, 1980년 7월호, p.249.

2 新羅의 飲茶風

1) 僧侶들의 茶供養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는 원효(元曉)가 차를 마셨다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한 암자[元曉房]가 있는데 향간의 말에 의하면, 사포성인(蛇包聖人)이 옛날에 머물던 곳이다. 원효가 와서 머물렀으므로 사포가 또한 와서 모시면서 원효에게 차를 다려 드리 고자 했지만 샘물이 없어 곤란했다. 갑자기 바위 틈에서 이 샘물이 솟아났는데 매우 달 아 젖과 같았다. 늘 (이 물로써) 차를 다렸다고 한다.³⁾

이 설화는 이규보(李奎報)가 1200년(神宗 3) 8월에 원효방을 참배하고, 그곳에서 들 은 바를 기록한 것이다. 원효가 이곳에 머문 적이 있고, 사포, 즉 사복이 원효와 인연이 있던 역사적 인물임⁴⁾에 틀림없다. 이 자료는 비록 설화라는 점에서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는 적지만, 원효가 차를 마셨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고려 숙종때 원효에게 추 증한 화정국사(和靜國師)에 주목하여, 한국 차도의 정신을 화정(和靜)이라고까지 단 정하기⁵⁾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고려사』에 보이는 화정국사의 화정(和靜)은 화쟁 (和諍)의 잘못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보천(寶川)과 효명(孝明)이라는 신라의 두 왕자가 오대산에서 수행할 때, 매일 이른 아침이면 우통수(于洞水)의 물을 길어다 차를 끓여 1만의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다.⁶⁾ 이들에 의해 705년(聖德王 4년) 진여원(眞如院), 즉 오늘날의 상원사(上院寺)가 창건되기도 했다. 이들이 길어다 차를 끓였던 샘물인 우통수 에 대해서 권근(權近)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대(西臺) 밑에 함천(檻泉)이 솟아나는데 빛과 맛이 보통물보다 낫고, 물 무게도 또한 그러하다. 그 물을 우통수라고 하며, 서쪽으로 수백리를 흘러 한강(漢江)이 되고 바다로 들어간다.⁷⁾

이를 통해 보천과 효명이 차를 끓였던 이 우통수가 고려말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도

3) 李奎報, 「南行月日記」(『東國李相國集』卷 23)

4) 拙稿, 「蛇福說話의 佛教的 意味」, 1983, 『史學志』 16 참조.

5) 鄭相九, 1983, 『茶文化學』, 詩文學社, p.45.

6) 『三國遺事』卷 3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條.

7) 權近, '五臺山西臺水精庵重創記'('東文選' 권 80)

유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이 샘물은 그대로 남아오고 있다.

경덕왕은 그 19년(760) 4월에 월명(月明) 스님을 조원전(朝元殿)으로 초청하여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던 변괴를 물리치고자 했다. 이에 월명이 도솔가(兜率歌)라는 향가를 지어 부르니 변괴가 곧 사라졌다. 이에 왕은 품다(品茶), 즉 좋은 차 한 봉과 백팔 수정염주를 하사했다.⁸⁾ 이 자료 또한 설화적인 것이지만, 경덕왕때 쯤에는 궁중에 차가 있었던 것을 알게 해준다. 사천왕사의 승려였던 월명은 피리와 향가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낭도(郎徒)이기도 했던 풍류인(風流人)이었다.

경덕왕은 그 24년(765) 3월 3일에 귀정문(歸正門)에서 한 위의(威儀)있는 스님을 맞이했다. 그 스님은 앵통(櫻筒)을 메고 있었고, 그 속에는 다구(茶具)가 들어 있었다. 충담(忠談)이라는 이 스님은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경주 남산의 삼화령(三花嶺)에 있는 미륵세존(彌勒世尊)에게 차를 공양하곤 했는데, 이 날도 삼화령으로부터 오는 길이었다. 충담은 왕의 청으로 차를 다려 대접했는데, 사발안에는 향기가 풍겼다.⁹⁾ 충담이 해마다 공양했던 삼화령의 미륵삼존(彌勒三尊)은 현재 경주박물관에 이안(移安)되어 있다. 충담은 향가 찬가과랑가와 안민가를 남긴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다. 당나라의 육우(陸羽; 727~803)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신라의 충담은 벗어나 무로 만든 통 속에 다구를 갖추어 끓여지고 다닐 정도로 뛰어난 차승이었음은 주목된다. 또한 충담이 미륵불에게 차를 공양했다고 하는 것은, 보천과 효명이 문수보살에게 차를 공양했다는 기록과 더불어, 당시에 차가 불전의 중요한 공양물이었음을 일깨워 준다. 현안왕은 잠저시에 무염국사(無染國師) 낭혜(朗慧)에게 멀리 제자례(弟子禮)를 펴고, 사자(使者)로 하여금 명발(茗醑)을 가지고 빈달이 없이 내왕하게 했다.¹⁰⁾ 또한 현안왕은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에게 차를 하사하면서 경주로 초청했던 일이 있다.¹¹⁾ 이러한 사실은 경덕왕이 월명에게 차를 하사했던 것과 더불어 신라왕실에서 고승에게 차를 귀한 예물로 선사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대립(金大廉)이 당나라에서 다시 차종자를 가져다 지리산에 심은 9세기 전반 경에는 어느 정도 토산차가 생산되었을 것이고, 음다풍 또한 널리 퍼졌을 것이다. 신라 하대에는 당나라의 차 또한 신라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는 진감국

8) 『三國遺事』 卷 5 「月明師兜率歌」條.

9) 『三國遺事』 卷 2, 「景德王·忠談師 表訓大德」條.

10) 「聖州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 卷上 p.77.

11)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朝鮮金石總覽』 卷上, p.63.

사(眞鑑國師) 혜소(慧昭; 774~850)가 한명(漢茗)을 마셨다는 기록과, 최치원(崔致遠)이 당에서 본국 사신의 배편에 차와 약을 사서 가신(家信)을 부쳐 보냈던 일¹²⁾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진감국사는 누군가가 그에게 중국차를 공양하면, 가루를 만들지 않은 채 돌솥에 넣어 쪄서로 삶으면서 나는 이 맛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하지 않고 배를 적실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¹³⁾ 이에 대해 비문을 지은이는 그가 참된 것을 지키고 세속적인 것을 어긴 예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세속에서는 흔히 말차(抹茶)를 즐겨 마셨음을 시사해 준다.

이외에도 9세기 중엽에 김입지(金立之)가 지은 성주사사적비편(聖住寺事蹟碑片)에 보이는 ‘다향(茶香)’이라는 문구¹⁴⁾, 그리고 경주 창림사지(昌林寺址)에서 발견된 ‘다연원(茶淵院)’이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쪽 등도 신라시대의 차를 알게 해주는 한 자료가 된다.

2) 四仙의茶具

풍류도(風流道)는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이었다. 화랑(花郎)과 낭도(郎徒)들은 서로 도의(道義)를 연마하고, 가악(歌樂)을 즐겼으며, 산수간에 노닐면서 풍류도를 수행했다. 이들의 기풍은 「서리를 모르는 잣나무」만큼이나 높고 싱싱했다. 따라서, 당시의 신라인들은 그들의 꽃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행동을 받들어 섬기고 본받기를 즐겨했고, 그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선(善)으로 옮기고 의(義)로 옮겨 대도(大道)에 나아가도록” 교화했다. 풍류도 사상은 신라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삼국통일은 물론 문화의 융성을 가능케한 시대정신이였다.

신라의 전시대를 통하여 화랑은 모두 200여명이 배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통일 직후인 효소왕(692~701) 때를 전후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선(四仙)이 가장 어질었고, 그 문도가 가장 번성했다.¹⁵⁾ 영랑(永郎)·술랑(述郎)·남랑(南郎)·안상(安詳) 등의 네 국선(國仙), 즉 네 명의 화랑은 진재(眞才)·번완(繁完) 등의 3천명 낭도를 이끌고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수행했다. 지리산의 영랑재, 언양 반구대, 월송정, 강릉의 경포대 및 한송정, 속초의 영랑호, 충석정, 금강산의 영랑현, 서해 장연의 아랑포 및

12) 『柱苑筆耕集』 卷 18, 謝探請料錢狀.

13) '雙谿寺眞監禪師大空塔碑', 『朝鮮金石總覽』 卷上, p.70.

14)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1976, 一志社, p.89

15) 『海東高僧傳』 卷 1, 釋法雲條 및 『破閑集』 卷下.

백령도 등지는 사선의 무리가 여행했던 곳이다. 특히, 영랑호 · 삼일포 · 영랑재 · 영랑현 · 사선봉 등지는 이들과 인연하여 생겨난 지명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의 행적을 기리는 비가 총석정 · 삼일포 · 한송정 등지에 세워지기도 했다. 고려말까지도 총석정의 사선비(四仙碑)는 남아 있었지만, 마멸이 심해 판독이 어려운 상태였고, 삼일포 및 한송정의 비는 대석(臺石)만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삼일포의 석벽(石壁)에 새겨진 「술랑도 남석행(述郎徒南石行)」과 반양 반구대에 새겨진 술년육월이일 영랑성업(戊年六月二日永郎成業)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강릉의 경포대 및 한송정에는 사선의 무리가 차를 끓이는 데 사용했던 다구(茶具)가 고려말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이곡(李穀)이 1394년(忠定王 1년)에 동해안 지방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인 「동유기(東遊記)」에는 사선의 다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포대에는 옛날 국선의 석조(石조)가 있는데, 대개 차를 다리는 도구다..... 한송정 역시 사선이 노닐던 곳인데, 고을 사람이 유상자(遊賞者)가 많은 것을 귀찮게 여겨 집을 철거해 버렸고, 소나무 또한 들불[野火]에 타버렸다. 다만 석조 및 석지(石池), 그리고 두 개의 석정(石井)이 그 곁에 남아 있을 뿐인데, 역시 사선의 다구다.¹⁶⁾

이곡의 이 기록은 사선의 무리가 차를 즐겨 마셨던 사실을 입증해 주는 자료다. 한송정은 시내에서 6km지점인, 지금의 비행장 동쪽에 있었지만, 현재는 석정(石井)과 또한 석구(石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석구에 대해서는 「동유기」보다 후대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석지(石池)를 석구로 오인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 흔히 석구로 불리는 돌은 가로 1m, 세로 60cm, 높이 30cm, 이 돌윗면에는 가로 40cm, 세로 10cm, 깊이 8cm의 장방공(長方孔)이 파져 있다. 그리고 이 돌의 전면에는 ‘녹두정(녹荳亭), 이 위면에는 ‘신라선인영랑연단구(新羅僊人永郎練丹臼)’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강릉부사 윤종의(尹宗儀)가 1898년에 새긴 것이었다.¹⁷⁾ 그러나 이 돌은 그 형태로 보아, 석구가 아니라 석지(石池)인 듯하다. 윤종이가 석구로 오인하여 글씨를 새긴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잘못 알려져 오고 있는 것이다. 석정(石井)은 사방 50cm 정도, 깊이 20cm 정도의 돌우물이다. 지금도 물이 맑지만, 옛날의 돌 위에 시멘트 턱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석조와 석지는 어떤 종류의 다구인가? 한송정의 그것이 모두 전해지지 않는

16) 李穀, 「東遊記」, 『東文選』 卷 71.

17) 崔善萬, 『江陵의 歷史變遷과 文化』, 1962, 江陵觀光協會, p.58.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지만, 다행히 14세기 전반 개경의 묘련사(妙蓮寺)에 전해지고 있던 석지조(石池窀)와 유사한 것이었기에 그 형태의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1337년(충숙왕 복위 6)에 이제현(李齊賢)이 지은 「묘련사석지조기(妙蓮寺石池窀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삼장(三藏) 순암법사(順庵法師)가 한송정을 구경하였는데, 그 위에 석지조가 있었다. 그 고장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대개 옛 사람들이 차를 다려 마시던 것인데 어느 시대에 만들었는지는 몰랐다. 법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릴 때 일찌기 묘련사에서 두 개의 돌이 수풀 속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만든 모양을 생각하면 이것이 아닌가 하였다. 돌아와 찾아보니 과연 이것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사방을 말(斗)처럼 모나게 다듬고, 가운데를 확처럼 둥글게 팠으니 이는 샘물을 담는 것이고, 그 아래에는 구멍이 있어 입을 벌린 것 같으니, 이는 열고 다시 막아 맑은 물을 고이게 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두 군데가 움푹한데, 둥근데는 불을 두는 곳이고, 타원형인 데는 그릇을 씻는 곳이며, 또한 조금 크게 구멍을 내어 둥근데와 통하였으니, 이는 바람이 들어오게 하였다. 합하여 이름하기를 석지조라 하였다. 이에 인부 10명을 동원하여 처마 아래에 굴러다 놓고는 손님들을 청하여 그 자리에 앉힌 다음 흰눈처럼 시원한 샘물을 끌어다가 황금빛 나는 차를 끓였다.¹⁸⁾

한송정의 석조나 석지가 묘련사에 전해오던 석지조와 거의 같은 형태의 것이었음은 이를 목격했던 순암법사의 증언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석지(石池)란 샘으로부터 흙통을 통해 물을 이끌어 고이게 한 것이었고, 석조는 돌로 만든 차부엌으로 한 쪽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곳과, 또 한 쪽에는 차그릇을 씻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멋진 야외용 다구였다고 생각된다. 통일 직후인 7세기말에 신라 특유의 다구가 있었다는 것은 신라의 음다풍과 관련지어 주목할 만한 일이다.

Ⅱ 의학의 기원에 관한 학설

고려시대에는 왕실 및 문인, 그리고 승려 등 귀족층에 차가 폭넓게 수용되어 있었다. 왕실에서 행해지던 각종 의식에는 차가 중요하게 쓰였고, 또한 왕의 하사품으로, 혹은 국제외교상의 중요한 예물로 쓰이기도 했다. 이 시대의 문인과 승려들은 차의 참맛과 진정한 멋을 알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차도에 깊은 이해를 가진 차인이 등장하고, 명전

18) 『益齋亂藁』 卷 6 및 『東文選』 卷 69.

회(茗戰會)라는 풍속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차를 귀한 선물로 주고 받았는가 하면, 상당수의 차시(茶詩)를 남겼다. 그들은 막힌 가슴과 혼미한 정신을 차로써 씻고자 했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신선(神仙)의 경계 혹은 선(禪)의 세계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같은 고려 귀족들의 차생활이 고려청자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 시대에는 주로 단차(團茶)를 다마(茶磨)에 간 말차가 사용되었던 것 같다.

1 王室에서의 茶

고려왕실에서는 초기부터 차가 귀중하게 쓰였다. 태조 왕건은 군민(軍民)에게 차와 복두 등을 하사했고,¹⁹⁾ 광종 때부터 공덕재(功德齋)에 공양할 차를 왕이 손수 다마(茶磨)에 가는 풍속이 생겨나, 최승로(崔承老)는 성종에게 이의 중지를 건의할 정도였다.²⁰⁾ 고려 왕실의 차에 관한 자료는 대체로 고려전기(高麗前期)에 관한 것이 많다. 당시 궁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행해질 때마다 진다(進茶)의식이 행해졌고, 국제외교상의 예물로 쓰이기도 했으며, 국왕이 신하들이나 고승 등에게 주는 하사품 중에 흔히 차가 포함되곤 했다.

고려 왕실에서 행해지던 각종 의식에는 차가 술이나 과일 혹은 꽃과 더불어 중요하게 쓰였다. 고려 왕실의 각종 의식은 대개 예종 때에 정해진 것이었다. 『고려사』의 예지(禮志)는 길·흉·군(軍)·빈(賓)·하(嘉)의 오례(五禮)로 편찬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흉·빈·하례 등에 차가 쓰였고, 특히 하례에는 더욱 많이 쓰였다.

하례의 경우, 태후(太后)의 책봉, 왕태자의 책봉, 왕자·왕희(王姬)의 책봉, 공주의 하가(下嫁), 원회(元會) 등의 의식과 대관전(大觀殿)에서 군신을 연회하거나 노인에게 사연(賜宴)하는 의식, 그리고 연등회 팔관회 등의 의식에 진다(進茶)의 의식이 행해지곤 했다. 빈례는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송(宋)의 사신 등을 맞이할 때 차를 대접했다. 흉례에는 제신(諸臣)의 상이 있을 때 왕실에서 주는 부의 중에 흔히 차가 있었고, 중형주대(重刑奏對)의 의식에도 차가 쓰였다.

하례에도 그 행사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그 의식이 달랐지만, 대체로 전상(殿上)에 차를 올리고, 술을 올리며, 식사를 올렸고, 태자 이하 시신(侍臣)에게 차를 내리고 술을 배풀며, 식사를 차리며, 음악을 연주하는 등의 의식이 차례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진다

19) 『高麗史』 卷 1, 太祖 14년 8월 癸丑條.

20) 『高麗史』 卷 93, 列傳 卷6 崔承老傳.

(進茶)란 주과식선(酒果食膳)을 올리기 전에 시신이 왕에게 차를 올리는 것이고, 이때 집례관이 전을 향하여 국궁하며 드시기를 권한다. 왕은 반드시 태자 이하 시신에게 차를 하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차가 태자 이하 시신에게 이르면 집례관은 배례를 청하고, 그러면 태자 이하는 두 번 절한다.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다. 집례관이 차를 마시라고 하면 그때야 차를 마시고, 마신 후에는 읍(揖)한다. 술이나 음식을 올리고 하사할 때에도 그 예식은 같다. 따라서 이것을 고려의 특별한 다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궁중의 엄격한 예식의 한 형태일 뿐이다.

송나라 사신 서궁(徐兢)이 인종 원년(1123)에 개경을 다녀간 견문기인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의 외국사신에 대한 다례(茶禮)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사신 일행이 머물며 유숙하는 곳은 순천관(順天館)이었다. 이곳에는 여러 건물이 있었는데, 순천관의 정·부사가 거처하는 낙빈정(樂賓亭)에는 각종의 글씨·그림·향·진기한 차 등을 진열해 두었고, 향림정(香林亭)은 차를 끓이고 바둑을 둘 수 있는 좋은 휴식처였다.²¹⁾ 관사 안에는 홍조(紅俎)를 놓고 그 위에 다구(茶具)를 진열한 다음, 붉은 색의 사포로 만든 상보(紅紗巾)로 덮었다고 한다. 매일 세 차례씩 차를 내고, 뒤이어 끓인 물을 약(藥)이라고 하여 내었다. 사신들이 그것을 다 마시면 기뻐하고, 혹 다 마시지 못하면 자기를 깔본다고 하면서 불쾌한 모습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늘 그것을 억지로 마셨다고²²⁾ 서궁은 술회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연회에서 진다의(進茶儀)에 대해, “연회 때면 뜰 가운데서 차를 끓여서 작은 은쟁반으로 덮어서 천천히 걸어와서 내놓는다. 찬자(贊者), 즉 의식의 절차 진행을 돕는 자가 차를 다 돌렸소라고 말한 뒤에야 마실 수 있으므로 으레 냉차(冷茶)부터 마시게 마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당시 고려 귀족 사이에 유행하던 차도로 보려는 견해는²³⁾ 문일평(文一平)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고려의 외국사신에 대한 진다의식이었지 고려 귀족들의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송나라 사신에게 특이한 것으로 비친 고려의 음다속(飲茶俗)이었던 것과, 이 같은 풍속이 고려 귀족 사회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노인사설의(老人賜設儀)가 행해질 때의 하사품 중에도 가끔 차가 포함되곤 했다. 노인사설의란 노인과 외롭거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왕

21) 『高麗圖經』 卷 27 官舍條.

22) 『高麗圖經』 卷 32 器皿條.

23) 文一平, 「茶故事」, 『湖岩全集』 2, 1939, p.359.

이 여러 가지 하사품을 주어서 위로하던 행사다. 성종은 9년(990) 10월에 서도(西都)에 행차하여 교(敎)하기를 “서경에 품관(品官)으로 나이 80세 이상자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리라”고 했다. 그 하사품 중에 차가 들어 있었는데, 5품 이상에는 10각, 9품 이상에게는 5각, 품관 이상의 모(母)와 처(妻)로서 나이 80세 중에 3품 이상에게는 2근, 5품 이상에게는 1근, 9품 이상에게는 2각을 하사하도록 했다.²⁴⁾ 목종은 10년(1004) 7월에 구정(毬庭)에 거동, 백성으로 남녀 80세 이상자 및 질역자 635명을 모아 차(茶) 등을 차등있게 하사했다.²⁵⁾ 현종은 그 즉위년(1009) 7월에 구정(毬庭)에서 백성들 중에 나이 80세 이상의 남녀와 질역자 635명을 모아 하사품을 내릴 때 차를 주었다.²⁶⁾ 또한 현종은 12년(1021) 2월에 서울의 남녀 90세 이상자에게 차 등을 하사했고, 그 이듬해 9월에는 서울의 남녀 80세 이상된 자와 질역자에게 차를 하사했다.

고려 왕실에서 제신(諸臣)의 상(喪)에 준 부의 중에는 흔히 차가 있었다.²⁷⁾ 최량(崔亮)이 졸함(995년)에 뇌원차(惱原茶) 1000각을, 최지몽(崔知夢)이 졸함(987년)에 차 200각을, 최승로(崔承老)가 졸함(989년)에 뇌원차 200각 및 대차(大茶) 10근을, 서희(徐熙)가 졸함(998년)에 뇌원차 200각 및 대차 10근을, 한언공(韓彦恭)이 졸함(1004년)에 차 200각을, 이주좌(李周佐)가 졸함(1040년)에 차를, 황보영(皇甫穎)이 졸함(1047년)에 대차 300근을 각각 하사했던 예가 그것이다. 이처럼 제신의 상(喪)에 차를 하사했던 것은 아마도 차가 상례(喪禮)에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국왕이 공이 있는 신하에게 준 하사품 중에 차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곤 했다. 문종은 3년(1049) 2월에 당시 80세 이상의 국노(國老)인 최보성(崔輔成), 조옹(趙顒), 이택성(李澤成) 등을 향연한 뒤 각기 사물을 내렸는데, 그중에 뇌원차 30각도 주었다.²⁸⁾ 숙종은 2년(1097) 6월에 홍왕사 비문을 지어 올린 문하시중 이정공(李靖恭)에게 차 등을 하사했다.²⁹⁾

예종은 10년(1115) 8월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박경탁(朴景탁)이 고별함에 경인(景仁)이라 사명(賜名)하고 차를 주었다.³⁰⁾ 또한 예종은 12년(1117) 4월 2일 여러 신하를 청연각(淸燕閣)으로 불러 송으로부터 온 용봉차 등으로 연회를 베풀기도 했

24) 『高麗史』 卷 3, 世家 成宗 9년 10월 甲子條.

25) 『高麗史』 卷 68 志 22 禮 10.

26) 『高麗史』 卷 4 世家 顯宗 卽位年 7月條.

27) 『高麗史』 卷 64 志 18 禮 6.

28) 『高麗史』 卷 7 世家 文宗 3년 2월 庚子條.

29) 『高麗史』 卷 11 世家 肅宗 2년 6월 戊子條.

30) 『高麗史』 卷 14 世家 睿宗 10년 8월 庚甲條.

다.³¹⁾ 일찌기 태조는 군민(軍民)에게 차와 복두 등을 하사한 적이 있고, 현종은 9년(1018) 2월에 해노(海弩) 2군(軍)의 교위(校尉) 선두(船頭) 이하에게 차와 배를 하사하기도 했다.³²⁾

고려 국왕은 불전(佛前)에 차를 공양할 때도 있었다. 성종 원년(982)에 최승로가 올렸던 시무28조 중에는 “듣자오니 성상께서는 공덕재(功德齋)를 설(設)하여 혹은 친히 차를 갈고 혹은 친히 보리를 간다고 하오니 성체(聖體)를 수고롭게 하는 이 폐단은 광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광종 때부터 공덕재에 공양할 말차를 왕이 친히 갈던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숙종은 4년(1100) 9월에 승가굴(僧伽窟)에 행차하여 제를 설하고 차등을 시주했다.³³⁾ 또 9년 8월에는 내고(內庫)의 차 등을 길 옆의 사원에 시주했고, 다음날에는 최위(崔謂)를 삼각산 승가굴에 보내 비를 빌게 할 때 차 등을 가져가게 했다.³⁴⁾

국왕이 승려들에게 주는 하사품 중에도 차가 자주 포함되었다. 태조는 그 14년(931) 8월에 승려에게 차와 향을 각기 차등있게 하사했다. 문종은 21년(1067) 9월에 국사(國師) 해린(海麟)이 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함에 친히 현화사(玄化寺)에서 전별(餞別)하고 차 등을 주었다.³⁵⁾ 예종은 그 12년(1117) 8월에 삼각산 청량사(淸涼寺)에서 이자현(李資玄)에게 선학(禪學)을 배운 뒤, 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그에게 차 등을 하사했다. 인종은 3년(1125) 이자현이 질병이 있자 국의(國醫)를 보내 문병하고 차와 약을 내렸다.³⁶⁾ 1210년 강종(康宗)이 조계산 제2세 진각국사(眞覺國師)에게 사자를 보내 차 등의 예물을 전하고 법요(法要)를 구했고, 최우(崔瑀)는 차 등 일용품을 항상 공급하기도 했다.³⁷⁾

당시 차는 국제외교상 중요한 예물(禮物)이기도 했다. 송의 국신사(國信使)들이 고려에 예물로 가져온 국신물(國信物) 중에는 용봉차(龍鳳茶)가 끼여 있곤 했다. 문종 32년(1078) 6월에 고려에 온 송의 안도(安燾)와 진목(陳睦) 등은 10근의 용봉차를 가져온 바 있다. 그것은 매 근마다 금은죽합자(金銀竹合子)를 사용하고 그 위에 명금오채(明金五綵)로 장식하고 화판(花板)으로 띠를 둘러 주칠갑(朱漆匣)에 붉은 꽃 비단으로 다시

31) 金緣, 『淸燕閣記』, 『東文選』 卷 64.

32) 『高麗史』 卷 4 世家 顯宗 9년 2월條.

33) 『高麗史』 卷 11 世家 肅宗 4년 9월條.

34) 『高麗史』 卷 12 世家 肅宗 9년 8월條.

35) 『高麗史』 卷 8 文宗 21년 9월.

36) 金富軾, 『淸平山文殊院記』, 『東文選』 64.

37) 『眞覺國師塔銘』, 『東國李相國集』 卷 15.

쌀 정도로 고귀한 것이었다.³⁸⁾ 예종 7년(1112) 10월에는 송의 국신물인 용봉차를 재신(宰臣)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³⁹⁾ 고려는 정종 3년(1037) 7월 경에 거란에 뇌원차를 예물로 보낸 바 있고,⁴⁰⁾ 인종 8년(1138) 3월 경에는 금(金)나라에 차를 예물로 보내기도 하였다.⁴¹⁾

고려 궁중에는 다방(茶房)이라는 관부가 있어 다사(茶事)를 맡았다. 다방은 내시(內侍)와 마찬가지로 궁내에서 왕에게 근시(近侍)하는 관부다. 그 구체적인 임무를 알게 해 주는 기록은 없지만, 궁중의 연회나 의식 등이 있을 때 차·술·과일·꽃 등을 차리고 식사를 올리는 등의 일을 맡았던 것 같다.

2 文人들의 茶生活

고려 전시대를 통하여 귀족들은 차를 즐겨 마셨을 것이지만, 고려 전기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 고려전기의 귀족들 또한 차를 마셨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이 시기에 고려청자로 대표되는 귀족문화가 융성했고, 왕실에서 널리 차가 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이 있는 신하에게 차를 왕이 하사하거나 제신상(諸臣喪)에 왕실에서 준 부의 중에 많은 양의 차가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종때 쯤에는 “차 마시기를 자못 좋아하여 더욱 많이 다구를 만들었다.”⁴²⁾고 한 기록은 고려전기 귀족사회에서 유행했던 음다의 풍속을 알게 해준다. 정지상(鄭知常)의 백율사시(栢栗寺詩) 중에 “민자천(閔子泉)의 물로 차를 다리니 차그릇엔 운유(雲乳)가 일어난다.”⁴³⁾고 한 귀절이나, 김극기(金克己)의 황룡사지 중에 “불피워 향기로운 차 달이니, 꽃무늬 자기에 흰 젖이 뜨네. 향기롭고 달콤한 맛 더욱 깊어 한 모금에 온갖 시름 다 사라지네”⁴⁴⁾라는 등이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닐 것이다.

12세기 후반 무인집권시기 이후의 문인들이 남긴 상당수의 차시(茶詩)가 전해지고 있어, 이들이 차를 즐기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규보(李奎報)는 노규선사(老珪禪師)로부터 조아다(早芽茶)를 선물받고 지었던 「유다시(儒茶詩)」⁴⁵⁾를 비롯한 8수의 차시를

38) 『高麗史』 卷 9 世家 文宗 32년 6월 甲寅條.

39) 『高麗史』 卷 13 世家 睿宗 7년 10월條.

40) 『高麗史』 卷 6 世家 景宗 3년 7월 甲寅條.

41) 『高麗史』 卷 16 世家 仁宗 8년 3월 己未條.

42) 『高麗圖經』 卷 32 器皿條.

43) 『東京雜記』 卷 2 佛宇條.

44) 『東京雜記』 卷 2 古蹟條.

남겼다. 이규보의 유다시를 읽어 본 손득지(孫得之), 이윤보(李允甫), 왕송(王崇), 김철(金轍), 오주경(吳柱卿) 등이 모두 이규보에게 화답시를 보냈는데, 이들은 모두 차의 연원에 밝아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을 무색케 할 정도의 시를 썼다고 한다. 손득지와 방연보(房衍寶)는 이규보의 유다시를 읽고 두 번이나 화답시를 보낼 정도였다. 특히 명종 27년 5월에 장원으로 급제한 이후 당시에는 내시(內侍)였던 방연보가 이규보에게 보낸 화답시는 이규보가 얼굴을 붉힐 정도로 차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규보는 차도 좋아했지만, 그 보다 술을 더 좋아했던 술꾼. 그가 노규선사에게 보낸 두 차례의 화답시에는 “만취한 후에야 차의 참맛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선사에게 봄술 빚기를 권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연보의 화답시에 차운하여 다시 화답한 이규보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 보인다.

인물 평하는 여가에 차에 언급하여
그 내력 해석하여 보내 왔구려
옹어봄에 모든 번민 말끔히 씻어
만취한 얼굴에 찬물 뿌린듯 하다오
차 대하여 술 청함이 미치광이 같으니
우습구나 먼저 말은 참으로 희롱이라오.

이같은 이규보의 식귀를 통해, 방연보가 그에게 보낸 화답시 중에는 차를 대해 술타령을 늘어 놓는 이규보를 힐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인로(李仁老; 1152~1220)는 「승원다마(僧院茶磨)」라는 시를⁴⁵⁾, 그리고 임춘(林椿)은 「기다향겸상인(寄茶餉謙上人)」⁴⁷⁾, 「다점주수(茶店晝睡)」⁴⁸⁾ 등의 시를 남겼다. 두 사람 다 죽림칠현(竹林七賢)에 속했던 문인들이다. 최정안(崔精安)은 가끔 왕륜사(王輪寺)의 법당에 가서 손수 차를 끓여 공양하기도 했다.⁴⁹⁾ 이진(李璡; 1244~1321) 또한 차를 즐기던 차인이다. 학문과 시문으로 유명했던 그는 해마다 정혜사(定慧寺) 만항(萬恒)으로부터 차를 선물받았고, 그때 마다 으레히 시로써 고마움을 전했다고 하지만, 현재 그의 시는 남아 있지 않다.⁵⁰⁾ 이연종(李衍宗)에게 차를 선물했던 박충좌(朴忠佐; 1287~1349)와 소년 시절 명전회(茗戰會)에 참석하기도 했던 이연종 등도 차를 무척이나 즐기던 사람들이다. 박충좌는 충목왕에게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시강(侍講)하기

45) 『東國李相國集』 卷 13.

46) 『破閑集』 卷中.

47) 『西河集』 卷 1.

48) 『東文選』 卷 19.

49) 李奎報,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 『東文選』 卷 67.

50) 『益齋亂藁』 卷 4 「松廣和尚寄惠新茗順筆亂道寄呈丈下」.

도 했던 사람이고, 이연중은 충정왕으로부터 공민왕 때까지 두루 여러 관직을 거쳤던 인물이다. 이연중의 「사박치암혜다(謝朴恥菴惠茶)」⁵¹⁾라는 차시가 남아오고 있다. 고려 말 14세기 후반에 차를 즐기던 사람으로 이제현(李齊賢), 이색(李穡), 한수(韓脩), 정몽주(鄭夢周), 이숭인(李崇仁), 원천석(元天錫), 권정(權定) 등이 있었다. 이제현은 「사송광승기다시(謝松廣僧寄茶詩)」⁵²⁾를 남겼다. 그에게 차를 보내 준 송광사의 스님은 그의 아버지 이진에게 늘 차를 선물했던 혜감국사 만항의 제자였다. 그는 이 차시에서 “차는 술마셔 불붙는 듯한 창자를 식혀주고, 안개 서린듯 흐린 눈을 맑게 해주는 참으로 좋은 약”이라고 했었다.

고려말의 천재적인 문인 이색은 차시 10여 수를 썼다. 현존하는 그의 시가 6천여 수에 이름을 감안하면, 그의 차시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차를 알고 즐기던 차인이었다. 그는 샘물을 노래했고⁵³⁾, 물이 끓는 소리를 즐겼으며, 여러 스님들로부터 차를 선물받기도 했고, 차 양식이 떨어지면 가동(家童)을 시켜 차를 구해 오도록 하였던 차인이었다. 한수는 경상도 안렴사와 엄광대선사(嚴光大禪師)로부터 차를 선물받고 쓴 차시 두 수를 남겼다.⁵⁴⁾

“눈보라 휘날리는 밤 그윽한 서재에 홀로 누워 돌솥에서 나는 술바람 소리를 즐겨 듣는다”고 했던 정몽주는 이미 널리 알려진 차인이다. 성리학자로서 혹은 문장가로 알려진 이숭인은 “좋은 차는 아름다운 사람과 같다”고 하면서 지기(知己)와 더불어 차를 주고 받았고, 또한 차의 색향미(色香味)를 즐기곤 했다. 그의 차시 몇 수가 전해진다. 차와 안화사(安和寺)의 샘물을 정도전에게 선물하면서 돌솥의 술바람 소리 들어보기를 권하기도 했다.⁵⁵⁾ 고려말 원주의 치악산에 은거했던 원천석은 차시 한 수를 남겼다.⁵⁶⁾ 여말선초의 권정은 남쪽의 옛 친구가 보내준 신차를 받고 “차가 사람의 잠 적게 한다니 도리어 싫어라. 잠자면 걱정 있는데 잠이 적으면 어찌할 것인가⁵⁷⁾”고 차가 잠을 쫓아 주는 효능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려의 문인들은 차와 다구 등을 서로 귀하게 선물했고, 선물을 받은 쪽에서는 그 고마움에 대해 시로써 화답하곤 했다. 그들은 차로써 막힌 가슴과 혼미한 정신과 번뇌를

51) 『東文選』 卷 7.

52) 『益齋亂藁』 卷 4.

53) 『牧隱詩藁』 卷 3 靈泉.

54) 『柳巷先生集』 26張 및 27張.

55) 『陶隱先生詩集』 卷 3.

56) 『耘谷詩史』 卷 5 '謝弟李宜差惠茶'.

57) 『東文選』 卷 21 '謝友人惠茶'.

씻고자 했고, 그리고 세속적인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바람을 타고 신선의 경계에 이르기를 염원했다. 또한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던 그들이기에 그들의 차생활은 다선일미적(茶禪一味的)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규보가 “한 잔의 차는 곧 참선에 들 때 (一甌卽是參禪始)”라고 했던 것이 이 뜻이라.⁵⁸⁾

3 僧侶들의 차와 禪

승려들이 차를 마시거나 불전에 차를 공양하던 것은 신라 이래로 있었던 일이지만, 고려시대의 승려들은 더욱 차를 즐겼다. 잠을 쫓아주는 차의 효과가 수행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차도는 곧 선(禪)과 통하는 것이었기에 더욱 의미있는 것이었다.

의종이 그 13년(1159) 3월에 현화사(玄化寺)에 거동했을 때 동·서 양원(兩院)의 승려들은 다정(茶亭), 즉 다관(茶館)을 마련하고 서로 어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경쟁했다고 한다.⁵⁹⁾ 이는 당시 사원에서 차가 소중하게 인식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해준다. 김극기가 황룡사(皇龍寺)에서 “불피워 향기로운 차 달이니 꽃무늬 자기에 흰 젓이 뜨네”라고 읊었던 것도 이 무렵이다.

이규보가 개경의 안화사(安和寺)에 들렀을 때 어떤 스님이 차를 달여주며 향기도 빛도 갖추었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⁶⁰⁾ 아마도 품다(品茶)에 밝은 스님이었을 것이다. 일찍부터 안화사에는 달고도 맑은 좋은 샘물이 있었다. 산 중턱에 있는 이 샘물 곁에는 안화천(安和泉)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갖가지 꽃과 괴석 등으로 꾸민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⁶¹⁾ 고려말의 이숭인이 이 안화사의 샘물을 정도전에게 보내면서 차를 끓여 마시기를 권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샘물은 유명했던 모양이다. 승려들 중에는 물을 평하는 품천(品泉)이나 차의 품질을 평하는 품다(品茶)를 즐겼다. 이규보의 시 중에 “노승들 일도 많도오. 차맛도 물맛도 평하려니”⁶²⁾라고 한 귀절이 이를 말해 준다. 또한 그 품평에 뛰어난 승려도 있었다. 운봉(雲峰)의 노규(老珪)선사 같은 이였다. 14세기 전반쯤의 일 이긴 하지만, 영남의 어느 사원에는 명전회(茗戰會)가 열리기도 했었다.⁶³⁾ 명전은 투다(鬪茶)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차를 누가 더 맛있게 낼 수 있

58) 『東國李相國集』 卷 13 「房壯元衍寶見和次韻答之」.

59) 『高麗史』 卷 18 의종 13년 3월條.

6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 開城府上 佛宇條.

61) 『高麗圖經』 卷 17 祠宇 靖國安和寺條.

62) 『東國李相國集』 卷 7 和宿峰城.

63) 李衍宗, 「謝朴恥庵惠茶」, 『東文選』 卷 7.

능가를 겨루는 풍속이었다. 고려 승려들 중에는 차 끓이는 익숙한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인로가 「승원다마(僧院茶磨)」라는 시를 썼던 것으로 보아 사원에는 말차를 만드는 다구인 다마(茶磨)까지 갖춘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남녘의 절에서는 스님들에 의해 차가 법제되고 있었던 것 같다. 운봉의 노규선사가 이규보에게, 송광사의 스님이 이제현에게, 가지산문의 영공(英公)이 이색에게, 엄광(嚴光)대선사가 한수에게, 겸상인(謙上人)이 임춘에게 각각 차를 선물했던 사실은 당시 사원에서 토산차가 생산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송광사(松廣寺)의 전신인 정혜사(定慧寺)에서는 차가 스님들에 의해 법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혜사의 제10세 만항(萬恒)이 이진에게, 또한 만항의 제자가 이제현에게, 부목(夫目)화상이 이색에게 차를 선물했던 사실로써 짐작되는 일이다. 특히 통도사(通度寺)에는 이 절에 차를 만들어 바치는 다촌(茶村)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에 통도사 북쪽 경계인 동을산(冬乙山) 다촌(茶村)은 차를 만들어 절에 바치던 곳이다. 절에 바치던 차밭(茶田)과 다천(茶泉)이 지금까지도 오히려 남아 민멸하지 않으니 후세사람들이 다소촌(茶所村)이라고 했다.⁶⁴⁾

많은 사원전(寺院田)을 소유하고 있던 고려시대에 절에 차를 만들어 바치던 다촌이 있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일찌기 문일평(文一平)은 동을산 다촌이 언양(彦陽)이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그는 통도사 사적에 북다촌평교내거화군지경야(北茶村坪郊乃居火郡之境也)라는 기록과 거화(居火)는 언양이라고 한 『삼국사기』의 기록에 주목했던 것이다. 지금 그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다촌이 언양 쪽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물론 승려들 중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차를 마셨던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던 고려의 옛 탑 속에서 네 덩이의 용단승설(龍團勝雪)이 대원군 이하응(李昞應)에 의해 발견되었던 것은 이같은 사실을 알게 해준다.⁶⁵⁾ 그리고 탑 속에 차를 넣었던 것은 광종이나 성종이 공덕재에 공양할 차를 손수 맷돌에 갈았고, 최정안(崔精安)이 왕륜사의 법당에 차를 공양했던 사실과 더불어 당시 사원에서의 차는 불전(佛前)에 올리는 공양물로도 쓰이고 있었던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은 「화인사다(和人謝茶)」라는 차시를 남겼다. 그는

64) 『通度寺誌』, 1979, 亞細亞文化社, p.26.

65) 李尙迪, 「記龍團勝雪」, 『恩誦堂續集』 卷 1.

이 시에서 “이슬 내린 봄 동산에 무엇을 구할 건가 달밤에 차끓이며 세속 근심 잊을까나”고 하면서, 선품(仙品)인 차는 수행하는 절간에 어울린다고 했다.⁶⁶⁾ 진정국사(眞靜國師) 천책(天頌; 1206~?)은 어느 스님으로부터 차를 받고 「사선사혜다(謝禪師惠茶)」라는 시를 썼다.⁶⁷⁾ 그는 “맑은 바람이 거드랑이에서 풀무질한다”고, 차 한 잔에 신선의 경지를 맛보았던 것이다.

원감국사(圓鑑國師) 충지(冲止; 1226~1292)는 수선사의 제6세로 지눌의 선종을 계승했던 고승이다. 그의 시문집 『원감집(圓鑑集)』에는 최이(崔怡)와 금장대선사(金藏大禪師)로부터 차를 받고 화답한 시가 있고, 또한 “도잠(陶潛)으로 다려(茶侶)를 삼음이 이미 오래”라고 한 것이나, “날마다 시자가 차를 내온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차를 즐기던 다승(茶僧)이기도 했다. 그는 금장대선사가 보내준 신차를 통해 봄을 얻은 기쁨을 맛보는 것이었다. 충지의 선(禪)세계는 무사(無事)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있었다. “배고파 밥먹으니 밥맛 더욱 좋고, 자고 일어나 차 마시니 그 맛 더욱 좋다”는 식이었다. 그의 시 중에 다연선담(茶煙禪榻)이란 귀절이 보이듯, 그에게 차와 선은 한 맛으로 통하는 것이었다.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불법이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있으며, 행주좌와(行住坐臥) 하는 곳에 있으며,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거기에 있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곳에 있다”고 한 경지와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4 土産茶와茶具

9세기 전반에 지리산에서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음을 감안할 때, 고려시대에는 어느 정도 차가 생산되고 있었을 것은 짐작되는 일이다. 차가 생산되고 있던 그 구체적인 지역을 알 수는 없지만, 차 재배의 적지인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에 해당했을 것이고, 조선초기에 차가 생산되고 있던 지역에는 고려 때에도 차가 재배되고 있었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차 생산지는 지리산의 화개(花開)였다. 그러나 이 지방의 주민들은 차 공납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규보는 화개사람들이 차 공납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던 모습을 그의 차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화개에서 차 따던 일 논하면
관에서 독려함에 장정이나 노약자 구별 없었네

66) 『大覺國師文集』 卷 18.

67) 『湖山錄』 卷上, (『韓國佛教全書』 6, p.199.)

험준한 산 속에서 간신히 따 모아
멀리 서울에 등짐져 날랐네
이는 백성의 애끓는 고혈이니
수많은 피땀과 간신히 이르렀네⁶⁸⁾

그는 이 시를 “산야를 불살라 차 공납 금하면, 남녘 백성들 편히 쉬이 이로부터 시작되리”라고 끝맺고 있다.

이규보의 이 시를 통해 볼 때, 조정에서는 차의 재배에는 힘쓰지 않은 채, 대부분 자생하는 차를 그 지방민을 동원해 공납으로 거두어 들였던 것 같다. 이같은 형편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의 귀족들 또한 토산차의 생산에는 주력하지 않은 채 중국의 차를 즐겨 마시곤 했다. 이 사실은 서공이 “토산차는 쓰고 뚫어 입에 넣을 수 없고 오직 중국의 납차(蠟茶)와 용봉사단(龍鳳賜團)을 귀하게 여긴다. 하사해 준 것 이외에 상인들 역시 가져다 판다⁶⁹⁾”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중국의 배가 해안에 닿으면 고려인이 큰 독에다 물을 실어 공급해주고 차와 쌀을 받았다”⁷⁰⁾고 하는 기록은 중국의 차가 상선들에 의해 고려에 유입되고 있었던 한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차의 생산이 충분하지 못했던 당시에 차를 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이규보의 유다시에 “부귀한 가문에서도 오히려 차를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나, 또 다른 차시에서도 “수많은 잎 따서 한덩이 이루었으니 한덩이에 천금인들 어이 쉽게 구할손가”라고 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한수(韓修)가 경상도 안렴사로부터 신차(新茶)를 선물 받고 “임금님 드신 나머지를 나에게 나누어 줘 어찌 생각인들 했으랴, 올해엔 작설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⁷¹⁾라고 했던 것도 고려말 당시 차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를 알게 해준다. 이처럼 당시 문인들마저 쉽게 구하기 어려웠던 차를 일반 평민들이 맛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차를 전연 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1세기 초인 목종 때에 고려에는 다점(茶店)이 있었고⁷²⁾, 이규보의 차시에 차를 사고 파는데 품질을 속여 파는 간상(奸商)이 있다고 한 귀절을 보면 당시에 차가 거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수입된 차가 토산차 보다는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68) 『東國李相國集』 卷 13, 「孫翰長復和次韻奇之」.

69) 『高麗圖經』 卷 32 器皿三 茶俎條.

70) 『高麗圖經』 卷 33 舟楫 供水條.

71) 『柳巷先生集』 26張.

72) 『高麗史』 卷 3 목종 5년 7월條.

차는 그 법제하는 방법에 따라 엽차(葉茶), 단차(團茶), 말차(抹茶) 등으로 구분되고, 또 차를 따는 시기에 따라 납차(臘茶), 화전차(火前茶), 우전차(雨前茶) 등으로 불렸다. 고려 때에는 주로 단차가 성행했던 것 같다. 차의 수량이 흔히 각(角)으로 헤아려졌던 경우나, 이규보가 “수 많은 잎을 따 한 덩이(一併)를 만들었다”고 한 것, 그리고 단차를 가루로 만드는데 필요한 다구인 다마(茶磨)가 전해오고 있는 것 등이 이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고려 문인들이 남긴 차시 중에는 증향차(曾香茶), 영아차(靈芽茶), 노아차(露芽茶), 자순차(紫荀茶), 엄차(嚴茶), 유다(孺茶) 등의 차 이름이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의 차 이름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다. 유다는 노규전사가 붙인 이름이지만, 이것이 폭넓게 사용된 차 이름은 아닌 것 같다. 고려의 차중에 뇌원차(腦原茶)가 있었다. 뇌원차는 정종 3년에 거란에 예물로 보내지기도 했으며, 문종 3년에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하사되기도 했던 것이다. 뇌원차는 전남의 뇌원이란 지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도 있지만 용뇌(龍腦)의 향기를 흡착시켜 만든 단차라는 설⁷³⁾이 옳은 것이다.

충렬왕 18년에는 향차(香茶)를 원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⁷⁴⁾ 원나라 궁중의 음선태의(飲膳太醫)였던 홀사혜(忽思慧)가 1330년에 지은 『음선정요(飲膳正要)』에 의하면, 향차는 백차(白茶)·용뇌(龍腦)·백약전(百藥煎)·사향 등의 가루를 멍쌀로 쓴 죽에 섞어 떡모양으로 박아낸 차다.⁷⁵⁾ 아마도 고려에서 원에 보낸 향차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던 차일 것이다.

송나라 사신 서공은 토산차의 맛이 쓰고 떼어 입에 넣을 수 없다고 했지만, 반드시 모든 차의 품질이 그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훗날 이규보가 유다를 예찬하고, 이송인이 토산차를 임실주(林實周)에게 보내면서 용단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비교해 보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은 토산차의 품질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았음을 알게 해준다.

음다의 풍습이 성행했던 고려시대에는 다구(茶具) 또한 상당히 발달했다. 말차를 주로 마셨던 고려시대에는 단차(團茶)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도구는 다마(茶磨)가 있었다. 이 다마는 궁중과 사원, 그리고 귀족의 집안에 두루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성종은 공덕재(功德齋)에 공양할 차를 친히 맷돌질 했는데, 이는 이미 광종 때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규보가 누군가로부터 다마를 선물받고 이에 답하는 시를 남긴 점,⁷⁶⁾ 또

73) 金明培, 「腦原茶」, 『雪錄茶』 1983년 12월호 p.6.

74) 『高麗史』 卷 30 忠烈王 18년 10월條.

75) 金明培, 「香茶·雙角龍茶」, 『雪錄茶』 984년 1월호 p.8에서 재인용.

76) 『東國李相國集』 卷 14, 「謝人贈茶磨」.

한 이인로가 사원에서 다마를 돌리며 차를 갈던 모습을 노래한 「승원다마」라는 시를 남긴 점 등으로 알 수 있다. 특히 1930년경 개성에서 다마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⁷⁷⁾ 이와 비슷한 형태의 다마 수점이 전해지고 있어 실증적 자료가 되고 있다. 화로는 다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다구의 하나다. 서궁은 중국 것을 모방한 은로(銀爐)가 다구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규보의 차시 중에 전로(塼爐)라는 용어가 보인다. 물을 끓이는 다구로는 다리가 달린 솔인 다정(茶鼎), 다리가 없는 솔인 다부(茶釜), 곱돌 등으로 만든 석정(石鼎), 쇠로 만든 주전자인 철병(鐵瓶) 등이 있었다. 특히 이규보가 남녘의 누군가가 보내주었던 철병으로 차를 끓이며 그 소리를 생황의 소리로 표현한 것이나,⁷⁸⁾ 임춘(林椿)이 석정에서 나는 소리를 지렁이 울음으로, 또한 정몽주가 석정의 송풍성(松風聲)을 즐겼던 것 등은 차술에서 끓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마음과 귀를 맑게 했던 고려 차인들의 격조 높은 풍류이기도 했다.

말차를 달이는 점다(點茶) 도구로는 다완(茶碗), 다선(茶筴), 다시(茶匙) 등이 쓰였다. 고려 숙종 때 고려를 다녀간 바 있는 손목(孫穆)이 쓴 『계림유사(鷄林類事)』에 다시(茶匙)를 다술(茶戍)이라고 한다는 기록은, 차가루를 퍼서 다완에 담는 도구인 차순가락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끝에 작은 고리쇠가 달린 차순가락이 전해지고 있는데, 나까오(中尾萬三)는 이를 다선(茶筴)의 일종으로 해석하기도 했다.⁷⁹⁾ 이처럼 고려 때에는 한 쪽은 차가루를 뜨는 다시로 사용하고, 그 다른 쪽으로는 격불하는 다선으로 겸용하도록 된 다구가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고려의 차인들은 탕호(湯壺), 금화오잔(金花烏盞), 비색소구(翡色小甌), 청자다완(靑磁茶碗) 등의 다구를 만들었던 것이다.⁸⁰⁾ 고려 때의 음다풍이 고려청자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고유섭(高裕燮)의 견해⁸¹⁾는 의심없이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이다. 다구는 차와 함께 고려 문인들 사이에 오고 가던 귀한 선물이기도 했다. 이규보가 철병과 다마를, 그리고 이색이 이우량(李友諒)으로부터 찾은 한 쌍을 선물받았던⁸²⁾ 등의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77) 鮎貝房之進, 「朝鮮に於ける茶に就きて」, 1932, 『朝鮮』 255, p.13.

78) 『東國李相國集』 卷 3, 「得南人所餉鐵瓶試茶」

79) 中尾萬三, 「仁和寺御室物目錄の陶磁」, 1934, 『大乘』 pp.27~30.

80) 『高麗圖經』 卷 32 器皿三 茶俎條.

81) 高裕燮, 『韓國美術文化史論叢』, 1966, 通文館, p.266.

82) 『목은시고』 卷 21, 「得堂弟李友諒書及茶鍾一雙」.

Ⅲ 朝鮮時代의 茶

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음다의 유풍(遺風)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와 더불어 쇠퇴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사실 조선시대의 차도는 고려때만큼 성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도 왕실에서는 꾸준히 다례(茶禮)가 행해졌고 초기에는 상당수의 문인들이 고려의 음다풍을 계승하고 있었다. 중기까지도 차를 아는 문인들이 가끔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는 차에 대한 이해가 빈약했다. 초기는 물론 중기이후에도 승려들 중에는 차를 마신 기록이 보이고, 남녘의 사원에서는 적은 양이었겠지만 차가 법제(法製)되면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 이 시대 선가(禪家)의 차도는 조주다풍(趙州茶風)을 계승한 것이었다.

이처럼 사원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던 음다풍은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한번 성행하게 되었다. 대홍사의 혜장(惠藏), 초의(草衣), 범해(梵海) 등의 다승(茶僧)과 정약용, 신 위, 김정희, 홍현주, 이상적 등 차를 즐기는 문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초의는,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하고, 차를 재배하는 등, 차도의 이론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정리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차도를 크게 일으켰다. 차도(茶道)라는 용어가 쓰였던 것도 이 무렵이었다. 고려시대 이후로 차의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고, 토공(土貢)을 강요한 관인들의 주구는 오히려 차의 생산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신분제사회하의 민중들이 비싼 차를 마시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1 王室의 茶禮

고려왕실에서 외국의 사신을 맞이할 때 다례를 행하던 의식은 조선왕실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다례의식은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명나라 사신[明使]을 맞아 다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빈례의식(賓禮儀式)에는 다례를 행하는 절차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궁중의 모든 의식이 다 그러하듯이, 다례 또한 매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초기에 행해진 다례에는 작설차가 사용되었다. 태종 2년 5월에 명의 사신에게 작설차가 사여했던 것⁸³⁾이나, 세종 원년 정월에 명사(明使) 유천(劉泉)이 전다기(煎茶器)를

청한 바 있고, 그 2월에 왕은 유천과 황엄(黃嚴)에게 각각 차 서말(三斗)을 하사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⁸⁴⁾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의 다례에는 작설차가 아닌 인삼차(人蔘茶)가 흔히 사용되었던 것 같다.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가 선조에게 “조선인이 인삼차를 마시나 이것은 차가 아니고 탕(湯)입니다⁸⁵⁾”고 한 것으로 미루어 선조때 쯤은 흔히 인삼탕이 차 대용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 23년(1799) 12월에 영접도감(迎接都監) 조쇄관(趙鎖寬)이 올린 계(啓)에서도 당시의 다례에는 매번 인삼차가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조쇄관이 계언(啓言)하기를,

사신을 맞고 보낼 때의 다례 시에 매번 인삼차를 사용하는데, 상용하는 차가 아니기에 그 맛을 모르고 마시기를 꺼립니다. 올 봄 다례시에 목격한 바를 말씀드리면, 객사(客使)가 차종을 받고도 마시지 않아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좋은 차를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⁸⁶⁾

이에 왕은 이 건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정묘호란(丁卯胡亂) 이후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많은 차를 공물로 바쳐야 했다. 인조 5년, 7년, 11년, 13년, 14년에 천지차(天地茶) 50봉과 작설차 50봉을 보냈고, 15년 1월에 청이 조선에 요구한 많은 세공물 중에는 차 1천포가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왕실에서는 상례 및 제례 등에도 흔히 차가 쓰이곤 했다. 광해군 때까지 선왕(先王) 묘전(廟殿)의 제향 때마다 차가 흔히 사용되었음은, 광해군 11년(1619) 9월에 유충립(柳忠立)이 올린 계(啓)를 통해 알 수 있다.⁸⁷⁾ 조선초기 성현(成俔)의 『용재총화』에도 제사에는 차가 쓰였다고 했다. 훗날 제례를 다례라고 했던 까닭이 이로부터 연유했을 것이다. 선조 33년(1600) 선조비인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상에 다례(茶禮)가 행해졌다.⁸⁸⁾ 이같이 국상에 다례가 행해졌음은 당시의 한 관례였던 것이다.

사헌부의 관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풍속이 있었다. 다시(茶時)라는 것이 그것이다. 서거정(徐巨正)의 「재좌청기(齋坐廳記)」⁸⁹⁾에는 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헌부의 청사(廳事)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다시(茶時)이고 하나는 재좌(齋坐)다. 고려와

83) 『太宗實錄』 卷 3, 2年 5月條.

84) 『世宗實錄』 卷 3, 元年 正月 및 二月條.

85) 『宣朝實錄』 卷 101, 31年 6월條.

86) 『正祖實錄』 卷 52, 23年 12월條.

87) 光海君日記 卷 144, 11年 9월條.

88) 黃有詹, 『丁戊錄』 무신년 2월 1일조. (『大東野乘』 卷 58 所收)

89) 『연려실기술』 別集 卷6에 인용되어 있다.

우리 나라 국초의 대관(台官)은 다만 언책(言責)을 맡고 서무는 보지 않아서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는 자리를 베풀고 파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에는 사헌부의 관원들이 다시청(茶時廳)에 모여 차나 한 잔 마시고 헤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다시의 풍속은 고려때부터 계속된 것이었다. 태종 5년 7월의 사헌부의 상소문 중에도 다시라는 용어가 보인다.⁹⁰⁾ 또한 야다시(夜茶時)라고 하는 풍속도 있었다. 재상이나 혹은 하료(下僚)로서 간사하거나 부세를 많이 거두어서 백성을 해치거나 재물을 탐내어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여러 감찰이 야다시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집 근처에서 그 탐학함을 수죄(數罪)하고, 흰 판자에 적어서 그 집문에 걸었다. 그리고 가시덤불로 그 집문을 막아서 굳게 봉하고 착함(着啣)한 다음에 몰러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영원히 버림받게 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말경에는 다시나야다시라는 말만 전해지고 그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⁹¹⁾

2 朝鮮初期 文人들의 飲茶風流

여말선초의 차인들로는 이곡, 정몽주, 이숭인 등이 있었음은 전술한 바 있지만, 이 시기에 살았던 이거인(李居仁), 이행(李行), 성석연(成石琬) 등도 음다의 풍류를 즐기던 유명한 차인들이었다.

이거인(?~1402)은 고려와 조선 왕조에 걸쳐 요직을 두루 역임했던 문신이지만, 신선 같은 의표에 가을 밤의 밝은 달과도 같은 마음을 가졌던 차인이었다. 그는 집에 가득 서화와 금기(琴棋)를 모았고, 매화·난초·소나무·대나무 등을 심었으며, 시슴과 학을 길렀다. 손님이 오면 반드시 청소하고 향을 피우고는 술자리를 베풀고 차를 다리며 노래 하면서 즐겼다. 그는 풍채가 맑고 의표가 뛰어나 흰 수염에 얼굴은 옥처럼 맑아, 세속의 티가 없는 신선같은 인물이었다.⁹²⁾ 이처럼 세속에 살면서도 그 더러움에 젖지 않았던 그는 참으로 차인다운 차인이었다.

기우자(騎牛子) 이행(1352~1432)은 고려·조선 양 왕조에 걸쳐 벼슬했던 문신이다. 그러나 그는 얹매임 없는 무애의 풍류인이었고, 품천(品泉)에 뛰어난 차인이었다. 그는 평해(平海)에 살던 20여세의 젊은 시절부터 매양 달밤이면 술을 실은 소를 타고 산수

90) 『太宗實錄』 卷 10, 5년 7월 己酉條.

91) 李壑, 『松窩雜說』 (『大東野乘』 56卷 所收)

92) 『陽村集』 卷 22 '蘭坡先生詩卷後'

사이에 노닐던 풍류인이었다. 그의 호 기우자도 이에 인연한 것이었다.⁹³⁾ 그의 마음은 흰 구름 떠가는 하늘 밖에 있고, 그 하늘을 나르는 한 마리 학처럼 살다간 인물이었다. 그는 상곡(桑谷) 성석연(成石堧)과 친했다. 어느날 상곡의 모정에 있었을 때 상곡이 공도공(恭度公)으로 하여금 창 밖에서 차를 끓이게 했는데, 차의 물이 새버렸기에 다시 다른 물을 더 부었더니, 이를 맛본 이행은 이 차에 끓지 않은 물을 섞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물맛을 변별(辨別)할 줄 아는 차인이었다. 그는 우리 나라의 물을 평하여 “충주 달천(達川)의 물이 제일이고, 금강산에서 나와 한강으로 흐르는 우중수(牛重水)가 두번째며, 속리산 삼타수(三陀水)의 맛이 세번째”라고 했었다.⁹⁴⁾ 권근은 이행의 풍류적인 생활을, “도인이 저자에 숨어 살면서/ 길 옆에 집을 지었네/ 동산엔 아름다운 화초가 있고/ 모옥 아래엔 서늘한 샘이 솟는다네”라고 노래했었다.

성석연(?~1414) 또한 여말선초의 문신으로, 그는 동산에 조그만 집을 짓고 위생당(衛生堂)이라고 하고서 차를 끓이곤 했다. 이행은 그의 이같은 생활을 “깨끗한 새 마루에 하얀 판자(板子) 가지런한데/ 도서와 화죽(花竹)은 깊은 정취 있구나/ 담머리에 연한 푸른 빛괴화나무 세 그루/ 좋을시고 그곳엔 피꼬리 와서 운다네”라고 노래하기도 했었다.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는 하연(河演; 1376~1453)은 지리산에서 나는 차를 맛보고 신다시(新茶詩)를 지어, 그 차의 색·향·미의 뛰어남을 찬미하기도 했다.⁹⁵⁾

조선초기의 대학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선다(仙茶)의 묘미를 몹시도 좋아하던 차인이다. 그는 차술에서 끓는 물소리를 봄 강물의 음향으로 들으면서 찌든 가슴을 씻곤 했다. 그는 김시습과도 사귀었는데, 어느 날 김시습으로부터 손수 법제한 차를 선물받고 한편의 시로 화답했고⁹⁶⁾, 이외에도 「전다(煎茶)」·「병중전다(病中煎茶)」·「다조(茶窺)」 등의 차시를 남기기도 했다.

김종직(金宗直)을 비롯한 그의 문인 남효온(南孝溫)·정희량(鄭希良)·조위(曹偉) 등도 차를 즐겼던 차인들이었다. 김종직(1431~1492)은 함양군수(咸陽郡守)로 있던 성종 초에 군민들의 다공(茶貢)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엄천사(嚴川寺) 북쪽에 다원(茶院)을 만들고, 그 기쁨을 「다원」이란 차시로 노래하기도 했다.⁹⁷⁾ 생육신의 한 사람이기도 한 남효온(1454~1492)은 「은당자명(銀鑪煮茗)」이란 차시를 남겼다.⁹⁸⁾ 정희

93) 『양촌집』 권 21 「騎牛說」

94) 『慵齋叢話』 卷 3.

9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0 晉州牧 土産條.

96) 『四佳詩集』 卷 13 「謝岑上人惠雀舌茶」

97) 『佔畢齊集』 卷 3.

98) 『秋江先生文集』 卷 2.

량(1469~?)은 1498년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유배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된 인물이다. 그는 술로 세상 근심을 잊기도 했지만, 홀로 앉아 차를 달여 마시며 정신을 가다듬기도 했다. 「야좌전다(夜坐煎茶)」⁹⁹⁾ · 「독좌전다봉정매계(獨坐煎茶奉呈梅溪)」¹⁰⁰⁾ 등의 차시를 남겼다. 정희량이 「독좌전다」시를 봉정한 매계는 조위(1454~1503)의 호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문명(文名)을 떨쳤던 조위 또한 차를 알던 사람이다. 그의 「가섭암(迦葉庵)」¹⁰¹⁾이란 시는 훌륭한 차시이다.

이 외에도 구봉령(具鳳齡; 1526~1586)의 「독다경(讀茶經)」¹⁰²⁾, 심동구(沈東龜; 1594~1660)의 「차소동과전다운(次蘇東波煎茶韻)」 및 「설수전다(雪水煎茶)」¹⁰³⁾, 이단하(李端夏; 1625~1689)의 「음다(飲茶)」¹⁰⁴⁾ 등의 차시가 전해지고 있다. 이로 보면, 조선 중기의 문인들 사이에도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조(宣祖) 때 쯤에는 차 대신에 흔히 인삼탕을 마셨고, 또 차에 대한 이해가 빈약했다.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가 선조에게 “조선사람들이 인삼차를 마시지만 이것은 차가 아니고, 탕(湯)입니다. 인삼탕을 마시면 속이 번열(煩熱)하여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이 상쾌하지 못합니다. 귀국인이 차를 마시면 마음이 열리고 기운이 나서 백 가지 일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고 아뢰는 적이 있다. 이에 선조가 대신(大臣)들에게 양호의 이 말을 했을 때, 정탁(鄭琢)은 “이는 참으로 희롱하는 말입니다. 태만함이 어찌 차를 마신다고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고 했던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당시의 사정으로는 양호의 말이 조선사람이 태만하다는 풍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양호의 이같은 건의를 희롱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차에 대한 인식의 부족 탓이기도 했던 것이다.

3 禪家에 계승된 趙州茶風

조선시대에는 불교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선승(禪僧)들의 음다풍이 크게 쇠퇴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고려시대에 비해 승려들의 음다풍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쇠퇴해 버렸던 것은 아니다. 양반귀족들의 음다풍이 거의

99) 『續東文選』 卷 5.

100) 『虛庵先生遺集』 卷 2.

101) 『續東文選』 卷 5.

102) 『栢潭先生文選』 卷 5.

103) 『晴峰集』

104) 『大東詩選』 卷 5.

없어진 조선 중기이후에도 승려들은 차를 마신 기록이 보이고, 차의 법제 또한 남쪽의 사원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문인들은 흔히 절에서 차를 얻어 마시곤 했던 것 같다.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靖; 1454~1488)은 속리산 복천암(福泉庵) 옥상인(旭上人)으로부터 차를 얻어 마셨다. 그는 “밤에 옥상인과 마주 앉아 차달여 한 잔씩 나눠 마셨네/현담(玄談)으로 진세(塵世)의 생각 씻으니 종소리 듣자 깊은 깨달음”이라고 읊기도 했다.¹⁰⁵⁾ 복천암에는 바위 아래의 샘물을 나무홈으로 이끌어 석조(石槽)에 고이게 한 좋은 물이 있었다고 한다. 좋은 다천(茶泉)이 있었던 것이다. 홈통으로 물을 이끌어 암자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는 조위(1454~1503)가 방문해서 차를 얻어 마셨던 가섭암(迦葉庵)에도 있었다. 조위가 만났던 가섭암의 그 스님은 손님이 올 적마다 시자를 불러 홈통에서 떨어지는 그 좋은 물로 차를 끓여 대접하곤 했던 것이다.¹⁰⁶⁾

남효온이 1485년(성종 16) 금강산의 미타암(彌陀庵)을 찾았을 때도 주지 해봉(解逢)으로부터 차를 얻어 마셨고¹⁰⁷⁾, 유호인(兪好仁; 1445~1494)이 지리산의 엄천사(嚴川寺)를 찾았을 때에도 그곳의 스님은 차를 다리고 있었다.¹⁰⁸⁾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제청계산행상인원(題靑溪山行上人院)」¹⁰⁹⁾이라는 시 가운데 “손은 와서 차를 끓여달라 청하고 스님은 앉아 스스로 경전을 뒤적이네”라는 귀절도 단순한 문학적 표현만은 아닐 것이다.

조선 초기 다승(茶僧)으로는 기화(己和) 득통(得通; 1376~1433)과 설잠(雪岑)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 있다. 기화는 세상 인연이 끊어진 깊은 산속에서 구름과 달을 보며 향기로운 차를 달이면서 선열(禪悅)을 즐기는 산중의 맛을 노래하기도 했다.¹¹⁰⁾ 어느날 그는 옥봉(玉峯)의 각령(覺靈)에 차를 드리면서 “이 한 잔의 차는 옛날의 내 정을 표하는 것이요. 이는 조로(趙老)의 기풍을 머금었나니, 바라건대 그대는 한 번 맛보시오”라고 범문했다. 그리고 진산(珍山) 화상을 천도할 때 차잔을 들고서, “이 한 잔의 차는 한 조각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한 조각 마음에 한 잔 차 있나니, 마땅히 이 한 잔 차 한 번 맛보고 한 맛에 한량없는 즐거움 내어야 하네”라 하고, 곧 차를 올렸다.¹¹¹⁾

105) 『속동문선』 권 7 「遊俗離山記行贈旭上人」

106) 『속동문선』 권 5 「迦葉庵」

107) 南孝溫, 「遊金剛山記」, 『속동문선』 권 21.

108) 『속동문선』 권 8 「宿嚴川寺」

109) 『동문선』 권 10.

110) 『涵虛語錄』 중의 「山中味」 참조.

111) 『涵虛語錄』 「爲鉦峯覺靈獻香獻茶獻飯垂語」 및 「薦珍山和尚祭文」.

이로 미루어 당시 불교의 의식에 차가 쓰였음을 알 수 있고, 한 잔 차에 조주(趙州)의 선풍(禪風)이 깃들여 있다고 하면서, 한 잔의 차로 선열(禪悅)을 맛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화는 차와 선을 하나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설잠은 금오산(金鰲山), 즉 경주 남산에서 은둔하며 수행한 적이 있다. 31세로부터 37세에 이르는 시절이었다. 수많은 책을 쌓아 놓고, 모옥 주위에는 매화, 대나무 등 무수한 화초를 심어 가꾸면서, 풍류스러운 은둔생활을 즐겼다. 그는 차나무를 재배하고 손수 법제한 작설(雀舌)을 달이면서, 한 잔 차로 두 눈이 밝아진다고 노래했던 다승(茶僧)이기도 했다. 그는 「양다(養茶)」¹¹²⁾ · 「작설(雀舌)」 · 「자다(煮茶)」¹¹³⁾ 등의 차시를 남기기도 했다.

벽송지엄(碧松知嚴; 1464~1534)은 지리산 수국암(壽國庵)에서 만년을 지냈다. 하루는 시자를 불러 차를 다려오게 하고, 그 차를 다 마신 후 단정히 앉아서 입적(入寂)했다. 이처럼 지엄이 임종 직전까지 차를 마셨음은 평소에도 차를 즐겨 마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산대사(西山大師; 1520~1604)의 시 중에는 자주 차가 등장한다. 그가 지리산의 내은적암(內隱寂庵)에 있을 때, 5·6명의 스님이 그의 암자 앞에 집을 짓고 같이 살았다. 한 시냇물을 길어 차 달이며 날마다 염불과 참선으로 수행했다고 한다. 그의 「천옥선자(天玉禪子)」라는 시는 “낮이 되면 한 잔의 차요/밤이 오면 한바탕 잠일세/푸른 산 흰 구름이 함께 무생(無生)을 이야기하네”라고 쓰고 있다. 또한 그는 도운선자(道雲禪子)에게 “납자(納子) 일생의 업은 차 달여 조주(趙州)에게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¹¹⁴⁾ 이처럼 그에게 있어 차란 선(禪)과 한 맛으로 통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차가 결코 문학적인 표현만이 아님은 박좌상(朴左相)으로부터 한 봉의 차를 선물받고 감사의 회신을 보낸 적이 있는 것¹¹⁵⁾으로도 알 수 있다. 부휴(浮休)의 문하에서 경을 배우고 서산에게서 선을 익혀 선교(禪敎)에 능통했던 소요 태능(逍遙太能; 1562~1648)은 맑고 티없는 시를 빌려 도(道)를 올리던 시승(詩僧)이기도 했다. 그는 「조주차(趙州茶)」라는 시에서 세 등급의 찻잔으로 눈동자를 바꾸어 주던 그 조주의 가풍이 지금까지도 전해온다고 했었다.¹¹⁶⁾ 당시 선가(禪家)에는 조주다풍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는

112) 『梅月堂集』 卷 12.

113) 『梅月堂集』 卷 5.

114) 『淸虛堂集』

115) 『청허당집』 '上朴左相'

116) 『逍遙堂集』

시다. 해안(海眼)이 “밑 없는 바루에 조주차가 있다¹¹⁷⁾”고 선적(禪的)인 표현을 했던 것도 같은 예다. 일선(一禪; 1593~1608)이 도술산의 약사암에 이르렀을 때, 노승이 중국 차를 다려 권했던 것이나, 또한 그가 대둔사(大菴寺)에서 공양 뒤에 한 잔의 차를 맛보고 “아침 저녁의 풍월이 다 들어 있다”¹¹⁸⁾고 했던 것으로도 당시 사원에서 차를 마시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가의 조주다풍은 훗날 초의와 범해 등의 스님에게까지 계승되었다.

4 朝鮮後期の 茶人

조선중기 이래로 일부의 선승(禪僧)과 문인들에 의해 겨우 계승되고 있던 음다의 풍은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성행하게 된다. 대흥사(大興寺)의 초의(草衣)를 비롯한 다산(茶山), 추사(秋史) 등의 많은 차인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승려들은 신라 이래의 음다풍을 꾸준히 계승했다. 비록 그것이 폭넓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결코 단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19세기에도 지리산에는 승려들이 차를 만들고 있었다. 지리산에는 차를 만들기 위해 승려들이 개미처럼 모인다는 기록¹¹⁹⁾이나 칠불암(七佛庵)의 선승들이 차를 만든다고 한 사실¹²⁰⁾ 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산의 화개동(花開洞)에는 4·5십리에 연이어 차나무가 자라고 있었음에 주목할 일이다.

조선후기의 차는 대흥사를 중심으로 융성했다. 대흥사는 불교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있던 당시에도 13대 종사(宗師)와 13대 강사(講師)가 배출되는 등, 그 학풍과 선풍(禪風)을 드날리던 곳이다. 대흥사에서는 아암(兒庵)·초의(草衣)·범해(梵海) 등의 유명한 다승(茶僧)이 배출되었다. 아암 혜장(惠藏; 1782~1811)은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던 다산에게 우리 나라의 전통 차도를 알게 해준 이다. 그의 제자 색성(색性)도 차를 알았던 이다.

초의는 우리 나라의 차도를 다시 한 번 크게 일으킨 뛰어난 차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차도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우리 나라 유일의 다서(茶書) 『동다송(東茶頌)』을 남겼다.¹²¹⁾ 흔히 『다신전(茶神傳)』을 초의의 저서라고들 하지만, 이를 그

117) 『中觀大師集』(『한글대장경』 164 p.372.)

118) 『靜觀集』(『한글대장경』 164 p.198, 248)

119) 『阮堂先生文集』 卷 3 書牘 典權 高 齊書

120) 『東茶頌』

의 저서로 보기는 어렵다. 『만보전서(萬寶全書)』에 수록되어 있던 『다경채요(茶經採要)』를 필사(筆寫)한 것이 『다신전』이기 때문이다.¹²²⁾

차도(茶道)를 묻는 홍현주(洪顯周)에게 답하기 위해 쓴 『동다송』은 모두 31송(頌)으로 되어 있고, 자세한 시주(詩註)를 가하고 있다. 그는 『동다송』에서 우리의 토산차를 찬양했고, 차도의 본령을 해설했다. 칠불암의 선승들이 천하에 좋은 차를 속된 솜씨로 못쓰게 한다고 안타까와 했던 그의 차 법제 솜씨는 참으로 뛰어난 것이었다. 김명희(金命禧)는 초의의 차 만드는 비법은 오백년이라 처음 있는 일이라고 예찬할 정도였다. 그는 해마다 그가 만든 차를 그와 교유하던 많은 문인들에게 선물함으로써 음다의 풍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는 두륜산에 일지암(一枝庵)이라는 작은 암자를 짓고 40여년을 수행에 몰두한, 그리고 선(禪)과 시(詩)와 그림 등에 뛰어난 고승이기도 했다. 대흥사에 머물면서 초의와 교유한 바 있는 소치(小癡)는 일지암에서의 초의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초의선사가 거처하는 곳은 두륜산 꼭대기에 있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한 곳에 두어 간 초가를 엮어 그 속에서 살았다. 수양버들은 처마를 스치고, 작은 꽃들은 뜰에 가득하여 함께 어울리면서 뜰 복판의 상하 두 연못 속에 비치어 아롱졌다. 추녀 밑에는 크고 작은 석조(石槽)를 마련해 두었다.....초의선사의 그 청고(淸高)하고 담아(淡雅)한 경지는 세속인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매양 구름이 오락가락 하는 샘벽이나 달 뜬 저녁이면 선사는 고요에 잠긴 채 시를 읊으면서 흥얼거렸다.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다가 문득 일어나 뜰을 거닐면서 스스로 취흥에 젖어들곤 했다. 정적에 잠긴 작은 난간에 기대어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새들과 상대하고 그 깊은 오솔길을 따라 손님이 찾아올까 두려워 슬며시 숨어버리곤 했다.¹²³⁾

진정 맑고도 고아한 다승(茶僧) 초의의 생활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기록이다. 그가 옛부터 성현들이 모두 차를 사랑했음을 차의 성품이 샅되지 않아 군자(君子)와도 같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¹²⁴⁾이 헛된 과장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생활이다. 그에게 있어, 무사(無邪)한 차는 곧 대도(大道)로 통하는 것이기도 했다. 흰 구름 밝은 달을 벗삼아 한 잔 차를 마시는 차인 초의는 달리 도인(道人)의 자리를 부러워 하지 않아도 좋은 도인이었다.

초의에 의해 다시 한번 꽃핀 사원 차도의 전통은 다시 범해(梵海) 등의 스님에게로 계승되었다. 그는 33세 때인 1852년 여름 이절로 사경을 헤메다가 차로써 이를 고친 일

121) 『필자는 『동다송』을 분석, 『草衣禪師의 茶道觀』을 쓴 바 있다. (『史學志』 10, 1976)

122) 金明培, 「東茶頌과 茶經採要」, 1980, 『국회도서관보』 145, p.61.

123) 金泳鎬編譯, 1976, 『小癡實錄』, 瑞文堂, pp.70~73.

124) 『草衣集』 卷下 「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

이 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기록한 「다약설(茶藥說)」을 남겼다.¹²⁵⁾ 그는 다구(茶具)에 “오직 차마시는 일 이외에 무엇이 나를 유혹하리오”라고 명(銘)을 새기면서까지 청아하고 한가한 차생활을 즐겼다. 초의가 만년에 거처한 바 있는 일로향실(一爐香室)에서 “다로(茶爐)가 있는 온돌방에 앉았거니 누가 내 집을 가난하다고 하리오”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범해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차인의 심회를 「다가(茶歌)」¹²⁶⁾로 읊기도 했다. 특히, 이 시중에 “풍속을 관찰하니 차 즐기는 이 많다”고 한 구절은 주목된다. 차인 초의의 면모를 읊은 「초의차(草衣茶)」라는 시를 남긴 것으로 보아 그가 초의의 차도를 계승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19세기에는 문인들 사이에도 차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정약용 신위 김정희 홍현주 이상적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다산 정약용¹²⁷⁾(丁若鏞; 1762~1836)은 강진의 유배생활 시절에 혜장(惠藏)스님으로부터 차를 배웠고, 그후 이를 즐겼다. 차는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켜 주는 좋은 약이기도 했다. 유형지에서 만난 혜장, 그리고 그를 통해 맛본 차의 향기는 다산으로 하여금 새롭게 정신을 가다듬고 학문에 몰두할 수 있게 했다. 그는 1808년 봄에 다산동(茶山洞)으로 거처를 옮기고는, 정원을 가꾸고 차를 마시면서 10여 년 세월을 오로지 저술 생활에 몰두, 수 많은 저술을 남겼다. 다산은 차 양식이 떨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혜장에게 차를 구했다. 「결명소(乞茗疏)」를 비롯한 몇 편의 차시가 전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명소」는 초의의 「동다송」에까지 인용될 정도로 유명하다. 차는 자신의 병을 고쳐 줄 것이라고 간절히 차를 구했던 그의 시를 통해, 그가 막막한 가슴을 열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음은 차의 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혜장·초의·색성 등의 스님으로부터 차를 구해 마셨고, 그의 아들 학연과 학유 또한 훗날 초의와 깊은 인연을 맺고, 차를 즐겼다. 18년 유배 생활이 끝나 그가 강진을 떠날 때 다신계(茶信契)를 만들었다.¹²⁸⁾ 제자들과의 정의를 유지함은 물론 강진을 떠나서도 차를 구하고자 함이었다. 18명의 문하생 계원들이 약속한 일 중에는, “곡우에 연한 차잎을 따서 만든 차 1근과 입하에 만차(晩茶)를 따서 만든 병차(餅茶) 2근을 다산에게 보내드린다”는 내용이 있다. 그토록 좋아하던 차를 구하고자 하는 배려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병차(餅茶)는 다산이 그 법제를 가르친 바 있기도 한 차였다.

자하(紫霞) 신위(申偉; 1769~1845)는 어느 지방관으로 있을 때 한보정(閑步亭)이라

125) 『梵海禪師文集』 卷 1.

126) 『梵海禪師詩集』 卷 2.

127) 줄고, 「茶人으로서의 茶山」(『大興寺』, 一志社, 1977) 참조

128) 李乙浩, 「全南 康津에 남긴 茶信契節目考」, 1963, 『湖南文化研究』 1.

는 정자를 지어 차 다리는 곳으로 삼았다. 관아(官衙) 협문을 나가 수레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남산에 이르면, 바위 아래 깨끗하고 시원한 웅달샘이 있고, 그 곁에 정자를 세워 한가로운 시간이면 차를 달이곤 했던 것이다.¹²⁹⁾ 그는 초의로부터 차를 선물받기도 했다.¹³⁰⁾ 또한 「옥중전다(獄中煎茶)」¹³¹⁾라는 차시를 남겼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예술가나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차인의 품모와 선학자(禪學者)의 면모를 동시에 간직했던 인물이다. 그의 예술세계에 선기(禪機)와 다향(茶香)이 풍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젊은 시절 연경에서 맛본 승설차(勝雪茶)를 못잊어 승설도인(勝雪道人)이라는 또 하나의 호를 즐겨 썼고, 훗날 “참선과 차 끓이는 일로 또 한 해를 보냈다”고 토로할 정도로 차를 즐겼다. 그는 좋은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의 글씨를 아낌없이 줄 정도로 차를 좋아했다. 특히 그는 초의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초의는 해마다 추사에게 차를 보냈고, 추사는 글씨로써 고마움을 전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수 많은 편지에는 보내준 차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거나 차를 보내주기를 재촉하는 내용이 많다. 그는 명선(茗禪)이라는 글씨와 차시 몇 수를 남겼다. 차가 그의 예술이나 학문에 끼친 영향은 크다.¹³²⁾

이상적(李尙迪; 1804~1865)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차인이다. 역관으로 12차례나 중국에 왕래하며 그곳의 문인들과도 교유했던 그는 「기룡단승설(記龍團勝雪)」¹³³⁾과 많은 차시를 남겼다. 특히 그의 「읍다(挹茶)」¹³⁴⁾라는 차시는 차와 선(禪)을 결합시킨 것으로 뛰어난 것이다.

이외에도 초의에게 차도를 묻기도 했던 홍현주(洪顯周)는 「납설수팽다(臘雪水烹茶)」¹³⁵⁾라는 차시를 남겼고, 『동다송』에 제발(題跋)과 『초의시고(草衣詩藁)』에 발문을 썼던 신현구(申獻求)도 차를 즐겼으며, 다산의 두 아들 학유(學游)와 학연(學淵)도 차시를 남겼다.

129) 『紫霞詩集』, 『閑步亭并序』

130) 『자하시집』, 「代書答草衣師」

131) 『자하시집』 卷 3.

132) 줄고, 「茶道の 香氣」(『大興寺』, pp.53~77) 참조.

133) 『恩誦堂續集』 卷 1.

134) 『大東詩選』 卷 9.

135) 『海居齋詩鈔』 卷 2.

5 茶產地와 그 貢納

1454년(단종 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는 작설차의 산지가 표시되어 있다.¹³⁶⁾ 물론 이 기록은 단순히 차의 산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물, 즉 토공(土貢)으로 기록되어 있다. 작설차를 토공으로 바치던 지역은 남쪽의 경상도 및 전라도였는데 그 지방들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 : 밀양도호부, 울산군, 진주목, 함양군, 고성현, 하동현, 산음현, 진해현.
전라도 : 고부군, 옥구현, 부안현, 정읍현, 나주목, 영암군, 강진현, 무장현, 함평현,
남평현, 무안현, 고창현, 흥덕현, 순창현, 구례현, 광양현, 장흥도호부,
담양도호부, 순천 도호부, 무진군, 보성군, 낙안군, 고흥현, 동북현, 진원현,
영광현, 해진군.

이상 35개 지방에서 차를 토산물로 바치고 있었다. 어느 정도의 양이 생산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양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보다 약 70여년 뒤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土產)조에도 차의 산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세종실록』 지리지와 비교해 보면, 진해현·함양현·구례현·무진군·영암군 등 여섯 지방이 차의 생산지에서 빠지고, 양산군·곤양군·단성현·태인현·광산현·능성현·남양군 등 일곱 지방이 새로운 차 생산지로 추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가 생산되던 곳의 지방민들은 매년 차의 공납으로 몹시 고통을 받기도 했다. 함양군수로 부임했던 김종직은 군민들의 차공납으로 인한 고통을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다원(茶園)을 만들기도 했다.

함양군민은 매년 차의 상공(上供)으로 해서 멀리 차산지인 전라도에 가서 차를 사서 바친다. 차의 값이 고귀하여 쌀 한 말로 겨우 차 한 홉을 교환한다. 내가 처음 부임하여 그 폐를 알고 군민들에게 다공(茶貢)을 받지 않고 관에서 자작, 여기저기서 구걸해서 상공했다. 일찍 『삼국사(三國史)』를 읽다가 신라 때 차종자를 당으로부터 얻어다가 지리산에 심게 했다고 한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찌 이 산 아래에 신라 때의 유종이 없었겠는가 하고 노인을 만나면 반드시 물었더니, 과연 엄천사(嚴川寺) 북쪽 죽림 속에서 야생하는 차나무 몇 그루를 발견했다. 나는 너무나 기뻐 그곳에 다원을 만들고 그 근방의 민전(民田)을 관전(官田)을 주고 샀다. 수년 사이에 차가 자못 퍼져 원(園) 내에 가득하니, 4,5년이 지나면 상공액(上供額)에 충당하게 될 것이다.¹³⁷⁾

136) 『세종실록』 148~155.

137) 『점필제집』 권 3.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함양군에서는 차를 토공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20여년이 지났을 때 함양에서는 차가 생산되지 않았고, 훗날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던 시기에는 차 공납에서 빠지게 되었다. 김종직의 다원 개발도 공납에 응하기 위한 정도였지, 더 적극적인 차 생산에 노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종직 같은 현명한 수령이었기에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원 개발을 했겠지만, 타지방에서는 다공(茶貢)으로 인한 관인의 침착이 심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시습은 관가(官家)에서는 창기(槍旗)만을 취해 간다고 했다.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기록된 차 생산지를 조선 초기의 그것과 비교하면 10여 곳 이상이 줄어든 형편이다. 다공이 조선 초기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음은, 추사가 활동하고 있던 19세기 중엽의 지리산의 스님들이 관인들을 두려워하여 차를 깊이 감춘다고 한 사실¹³⁸⁾이나 19세기 후반의 범해(梵海)가 보림사(寶林寺)의 작설은 감영에 실어가고, 화개동 좋은 차는 대궐에 바친다¹³⁹⁾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이후로, 차의 재배에 대해서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은 채, 토공(土貢)만을 강요한 관인의 주구는 오히려 차의 생산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명나라 장수 양호는 선조에게 차를 요동(遼東)에 팔면 10근에 은(銀) 1전(錢)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차 산업을 일으켜 무역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서번(西蕃) 사람들은 하루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중국은 차를 팔아서 만 여필의 전마(戰馬)를 구합니다”고 구체적인 예까지 제시했지만, 선조를 비롯한 대신들은 희롱으로만 받아넘겼다.¹⁴⁰⁾ 1881년(고종 18)에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이 천진(天津)에 갔을 때, 청의 북양통상대신(北洋通商大臣) 이홍장(李鴻章)은 차나무를 널리 심어 해외에 수출할 것을 권유했다.¹⁴¹⁾ 이듬해 천진군기소(天津軍機所)의 총변(總辦) 유향림(劉蕡林)도 김윤식에게 다업 진흥(茶業振興)을 권유했다.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에 우리 나라에 왔던 청의 이한신(李瀚臣)이 접빈관(接賓官) 김창희(金昌熙)에게 논술한 「조선부강팔의(朝鮮富強八議)」 중에도 다업(茶業)을 권장했다. 또한 1885년에는 제물포세무사(濟物浦稅務司)가, 그리고 1887년에는 미국 공사(公使)가 각각 차의 재배와 수출을 건의하기도 했던 것이다.¹⁴²⁾ 이처럼 외국인들에

138) 『院堂先生全集』 卷 3 書牘 典權 高 齊書.

139) 『梵海禪師詩集』 卷 2 '茶歌'.

140) 『宣朝實錄』 卷 101, 31년 6월조.

141) 文一平, 앞의 글에서 재인용.

의한 다업진흥 건의를 받아들였음은지 1883년부터 농상사(農商司)에서는 차의 재배를 관장하고 차 재배를 위한 조사를 지시했고, 1885년에는 청의 구강도(九江道)에서 차나무 모종 6,000주를 수입하기도 했다.¹⁴³⁾ 이 무렵인 1885년에 안종수(安宗洙)의 『농정신편(農政新篇)』이 간행되었는데, 이 책에는 차의 재배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시대 총독부에 의해 또 한번 차산업이 장려되기도 했는데, 1912년 경에는 무등다원(無等茶園)이, 1940년 경에는 보성다원(寶城茶園)이 일인(日人)들에 의하여 경영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흔히 차는 작설차(雀舌茶)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대체로 엽차(葉茶)가 많았던 것 같다. 물론 단차(團茶)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후금(後金)에 보냈던 천지차(天地茶), 보림사(寶林寺)에서 계승되어 오던 녹태전차(綠苔錢茶)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일인들의 현지조사에 의해 강진에는 금능월산차(金陵月山茶), 백운옥판차(白雲玉板茶) 등의 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고려말 이래로 다식(茶食)이 만들어졌다. 송화(松花)가루, 검은깨, 쌀가루 등을 꿀에 개어 다식판(茶食板)에 박아낸 일종의 과자다. 이익(李瀾)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다식은 아마도 송조(宋朝)의 용단(龍團)이 변한 것일 것”이라고 했다.¹⁴⁴⁾ 아무튼, 이것은 고려말부터 병과(餅果)로 쓰였던 것이다.¹⁴⁵⁾

142) 이상은 金明培의 「朝鮮茶道史의 周邊」 (『아시아公論』, 1981년 5월호, pp.129~ 134) 참조

143) 金明培, 1983, 『韓國의 茶書』, 探求堂, p.208.

144) 『성호사설』 권 6 萬物門條.

145) 金奎鉉, 1979, 「朝鮮時代 茶禮小考」, 『鄉土서울』 36, p.106.